

1.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地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고통, 형벌, 파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실 '지옥(地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땅 지(地)' + '감옥 옥(獄)', "땅 속의 감옥"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형벌의 장소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을 단지 그런 장소로만 설명하지 않고 좀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말할 때 하나의 단어만 쓰지 않고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림자 처럼 있는 그런 곳으로 소개됩니다. 두번째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불타는 쓰레기장”으로 실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했는데, 과거에는 우상숭배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었고, 예수님 당시엔 불타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게헨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로, 부패와 절망, 하나님 없는 상태의 극단적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르타로스”로 “악한 영들이 갇힌 무서운 장소”로 사람보다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어떻게 이해할까?

요한복음 3:16-19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고, 자신의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지옥을 선택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을 통해 억지로 밀어 넣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선택한 결과로 주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절” 그 자체가 심판이며,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최종적 결과가 지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8-25은 지옥의 또 다른 본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욕심대로 살게 하셨다..." 바울은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며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에 내버려 둔 상태, 자기 욕망이 왕이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지옥의 본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단지 먼 미래에 불타는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욕망, 성공, 자아로 바꾼 사람은 이미 그 삶 속에서 지옥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옥은 천국의 결핍이다" 천국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분을 즐기고,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삶이라면,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결여된, 하나님의 없는 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을 왕으로 삼는 삶은 이미 그 안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옥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삶의 최종 결과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면, 지옥은 그 결핍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지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_____

-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로스)의 의미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 이미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_____

-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 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볼 수 있나요?

→ _____

- 로마서 1:18-25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_____

- “지옥은 천국의 결핍”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결핍을 경험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 _____

-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망과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고, 당신의 손길과 임재를 잊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 속에서 느끼는 공허와 결핍을 아시기에, 이제 우리 마음을 당신께 돌이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당신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영광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